

지역 소식

한국에 모인 선교사들의 새로운 일상

“요즘에는 ‘새로운 일상’에 관해 자주 듣게 됩니다. 진정으로 새로운 일상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더더욱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시기를 권유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새로운 일상이 되게 하십시오.”

—러셀 엠 넬슨 회장, 2020년 10월 연차 대회

2020년 3월 12일에 제일회장단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여 교회의 모든 모임 및 집회를 중단했다. 해외에서 봉사하던 외국인 선교사들은 귀국하여 국내 선교부에서 봉사를 시작했다. 안전을 고려하여 모든 선교사들의 외출과 길 전도가 금지되고 선교사 훈련원도 폐쇄되었다. 당시 전임 선교사로 부름받고 선교사 훈련원(이하 MTC) 입소를 기다리던 예비 선교사들의 선교 사업 출발 날짜가 무기한 연기되었고, 선교사 추천서를 제출하려던 청년들도 언제 선교사로 부름을 받을 수 있는지, 언제 선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선교사 훈련원 재개 일정을 예상하는 것은 코로나19 감염병이 언제 종식될지를 예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확실한 것이었다.

주님께서 지금 내게 원하시는 바에 따라

선교 사업을 고대하던 청년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주님과, 가족과, 신권 지도자와 상의하며 각자 주어지는 영감에 따랐다. 학교로 돌아가거나, 군복무를 먼저 시작하거나, 아니면

선교사 훈련원이 재개되기까지 기다리는 등, 어려서부터 계획해 왔던 20대 초반의 인생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다시 한번 내려야 했다. 약 두 달 후인 지난 5월에, 국내 첫 온라인 MTC가 시작되었고, 예비 선교사들의 출발 날짜도 다시 정해졌다.

지난 10월 말에 선교 사업을 시작한 서울 선교부의 황현비 자매는 선교사 추천서를 내는 것이 맞는 일인지 의문이 들었다. 그러나 그는 지금이 그가 선교사로 출발해야 하는 때라는 것을 알았다. “코로나19 감염병의 소요 사태를 보며 어쩌면 주님께서 저를 시험하고 계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 결국 선교 사업을 나가기로 결정했을 때 선교 사업에 대한 더 큰 소망이 생겼습니다.” 지난 6월에 선교 사업을 시작한 부산 선교부의 박주빈 자매 선교사는 “부름장을 받더라도 과연 임지에서 선교 사업을 하지 못하고 집에 머문다면 무기력해지거나 시간 낭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그러나 온라인 MTC 훈련을 마치고 선교부에 도착했을 때, “귀환할 때까지 코로나 기간이 끝나지 않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위한 계획을

사진: 국내에서 봉사 중인 선교사들의 모습들.
2020년 3월 자국으로 돌아갔던 외국인 선교사들이 같은 해 11월 국내의 선교 사업 임지로 복귀하기 시작했다. 자세한 내용은 뒷쪽 참고



2020년 1월호 L1

계속 진행하심을 느끼게 된 것이다.

해외로 부름을 받았던 예비 선교사들은 국내 임시 선교부에서 봉사를 시작했다. 일본 도쿄 남 선교부로 부름을 받았고 현재는 서울 남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는 정예진 자매는 온라인 MTC에서 일본어로 훈련받던 중에 자신이 서울 남 선교부에서 봉사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그는 얼마 후에 주님께서 당신의 특별한 자녀를 위해 자신을 준비시키셨음을 알게 되었다. “수원 지역에서 봉사하던 중에 알게 된 일본인 이웃을 위해 제가 배운 일본어로 토론을 통역하고 그분을 도와드리게 되었어요. 그분이 곧 침례를 받으신다고 해요. 제가 왜 이곳에서 봉사하게 되었는지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를 위한, 그리고 더 효과적인 선교 사업의 방편

그동안 외국인 선교사들이 한국을 떠나 각자 자국에서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봉사하는 선교사의 숫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적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통계적으로 봤을 때, 국내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이전과 비슷하거나 또는 오히려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복음을 배우고 침례의 물가로 들어서고 있다. 선교사와 회원들 모두가 온라인 선교 사업의 결실을 보면서 그 효과와 중대한 영향력을 느끼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선교 사업의 일상을 “진정한 선교 사업”으로 만들어 새로운 역사의 물결을 만드는 중이다. 부산 선교부의 어유진 자매는 이렇게 전한다. “완전히 바뀐 방식의 선교 사업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도 많고, 더 많은 선교사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8월에 선교 사업을 시작한 서울 선교부의 최제서 장로는, “추천서를 준비하기도 전에 코로나19 감염병이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선교사들이 격리되어 숙소에만 머무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젠 선교사가 필요 없을 것이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하지만 최 장로는 지금 당장 주님께 필요한 일꾼이었다. 그분께서는 그가 선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셨고, 그는 용기를 내어 추천서를 보냈다. 최 장로는 이렇게 전한다. “한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온라인 선교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노력과 소망과 행위들이 진정한 선교 사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교사들의 재입국과 더 기대되는 미래

지난 3월에 본국으로 귀국했던 외국인 선교사들 중 여덟

명이 지난 11월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서울 남 선교부로 돌아 온 앤드류 자매는 “다시는 한국 땅에 돌아올 줄 몰랐습니다. 미국 루이지애나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었는데, 2주 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라는 전화를 받았고, 기쁜 마음에 한없이 울었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부산 선교부의 길 장로는 한국을 떠나 자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를 생생히 기억한다. 그는 처음 돌아가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힘들었고 슬펐지만 곧 안도의 느낌이 들었다. “분명 놀라고 실망했지만, 교회 지도자들이 선교사들을 돌보고 주님께서 저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임시 선교부에서 봉사하다가 한국으로 복귀하라는 소식을 듣고 정말 기뻐합니다. 제 삶에서 가장 잘한 선택은 바로 지금 이 시기에 선교 사업을 선택하고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임시 선교부에서 봉사하던 브래들리 자매도 원래의 부름대로 서울 남 선교부로 돌아왔다. 2020년 3월에 그가 자국인 미국으로 송환되었을 때, 그곳에서 코로나19 감염병이 심각하게 퍼지기 시작했다. 이를 염려한 그의 가족 중 한 명이 선교 사업을 잠시 멈추면 어떨지 권유했지만 그는 선교 사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제가 하는 선교 사업이 얼마나 주님께 중요한지 알고 있고, 계속하고 싶다고 대답했어요. 코로나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있고, 이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다시 한국으로 되돌아가는 연락을 받고 행복감에 가슴이 뛰며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전했다.

서울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는 디즈 장로는 한국에서 주님의 일을 할 도구가 될 것이라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가 다시 한국으로 오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이 시기에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에 더욱 큰 감사함을 느꼈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선교 사업은 분명히 다릅니다. 어찌면 완전히 다릅니다. 이로 인해 걱정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웃들을 돕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선교사들은 계속해서 한국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봉사하는 선교사의 수가 다시 증가하면서, 한국에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모으는 일은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봉사하고 있는 선교사들은 예비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전한다. “지금 여러분이 이 시기를 위해 준비된 위대한 선교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필요로 하시며,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

첨단 와드: 가족 역사 사업의 문화를 만든다



코로나19 감염병 이후 성전이 제한적으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리셀 엠 벨스 회장은 지난 2020년 4월 연차 대회에서 가족 역사 사업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권유했다.

2020년 상반기에만, 와드 활동 회원 130여 명 중 90명이 조상의 기록을 찾고 이를 패밀리서치 웹 사이트에 입력한 와드가 있다.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더 열렬한 참여를 보이는 이들은 바로 광주 스테이크 첨단 와드 회원들이다.

“조상을 찾고, 의식을

받기 위해 그분들의 이름을 제출할 때 우리는 성전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성전 운영이 중단되었더라도, 가족을 찾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여전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품고 그분들을 대신해서 그분들이 “주님께 추천”되도록 일하는 것입니다.”

-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 “주님께 추천됨”, 2020년 10월 연차 대회



솔선수범, ‘인증 사진’의 힘

2020년 초에 새롭게 조직된 첨단 와드 장로정원회와 상호부조회 회장단이 집중한 것은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이었다. 이들은 와드 평의회 등에서 와드 회원들과 함께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에 대한 지침과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함께 읽고 토론하며,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정규 모임도 계획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 역사 지도자인 김용진 형제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장로정원회 회장단의 “인증 사진”이 회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목표의 실행을 마음에 현실적으로 그리게 했다. 장로정원회 회장단과 그 가족이 먼저 나서서 조상의 기록을 패밀리서치에 입력하고, 의식 카드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이를 와드 밴드(BAND: 온라인 커뮤니티의 일종)에 게시한 것이다.

가족 역사 사업에 대한 더욱 깊이 있는 이해와 공감대, 결심이 형성되며 점차 더 많은 회원들이 가족 역사 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또한 가족 역사 지도자와 상담자들이 실행에 어려움을 겪는 회원들을 따로 집축하여 돕기 시작하자, 더 많은 인증 사진들이 밴드에 올라왔다.

가족 역사 사업에 어려움을 느끼던 여러 성인 부부들은 가족 역사반에 족보를 가져왔고, 성전 및 가족 역사 상담자 또는 지도자, 그리고 다른 회원들의 도움으로 조상을 찾고 그들의 기록을 패밀리서치에 입력할 수 있었다.

첨단 와드의 문화가 된 가족 역사 사업

어떤 가정에서는 자체적으로 “가족 역사의 날”을 지정하여 가족들과 조상을 탐구하고 기록을 입력하는 활동을 하기도 했다. 70대 부부와 딸, 손자녀 등 3대가 함께 가족 역사 사업을 하며 유대감의 시간도 보냈다. 이러한 가족 활동은 사회적 거리 두기 속에서 가족과 함께 더 의미있는 시간을 갖도록 했다.

홍정환 형제는 첨단 와드 지역으로 이사온 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곧 가족 역사 사업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었다. 회원들의 인내와 부지런함이 가족 역사 사업을 이곳의 “문화”로 자리잡도록 했기 때문이다. “장로정원회 회장님을 비롯하여 저의 가족 역사 사업을 기꺼이 도우려는 분들이 많았고, 성찬식과 공과 시간에 가족 역사 사업에 대해 말씀하고 간증하시는 것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홍 형제는 족보를 보고 직계 가계도로 정리했고, 이를 항상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자녀들에게 주었다. 이는 자녀들이 자신의 뿌리를 알고 자긍심을 지니며, 조상과 가족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게 돕는 훌륭한 유산이 될 것이다. 앞으로 홍 형제는 조상들의 돌아가신 때와 장소를 정리하여 가계도에 포함시킬 예정이며 그 시대의 한국사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들도 간단하게 정리하여 후손들이 생동감 있게 조상들에 대해 연구하고 배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홍 형제는 이렇게 전한다. “가족 역사 사업은 현재의 내 가족을 하나로 묶어 주고 조상들과 후손들과도 하나로 연결시켜 줌으로써 가족을 강화시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업입니다.”

첨단 와드의 오경숙 자매는 아들과 함께 침례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가족 역사 사업을 위해 노력하며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다. 오 자매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대리 의식을 시작으로 남편의 조상들을 위한 가족 역사 사업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남편 가족의 족보를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오 자매는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한 후에 족보를 너무나 쉽게 찾는 축복을 받았고, 이는 비회원인 남편과 오 자매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기적같은 경험이 되었다. 오경숙 자매는, “가족 역사 사업에 힘쓰면서, 그 전에는 알지 못했던 조상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사를 지낼 때 가족 역사 사업을 통해 찾게 된 조상을 기억할 수 있었고 그들이 주님 곁에서 사랑을 느끼길 바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라고 전했다.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와드 회원들은 2020년 봄부터 패밀리서치에서 조상의 의식 카드를 각자 출력하여 성전에서 대리 의식을 진행하려 했으나,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성전이 제한적으로 운영되면서 그 계획을 잠시 보류하고 계속해서 기다리는 중이다. 그러나 성전에 가지 않더라도 하반기에도 가족 역사 사업을 지속하자는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패밀리서치 “추억” 페이지 부분에 조상들의 사진과 음성 등 조상의 기록과 역사를 꾸준히 입력하고 있다. 이 역시 상반기 목표 때처럼 장로정원회 회장단이 모범이 되고, 평의회 지도자들, 그리고 일반 와드 회원 순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첨단 와드 장로정원회 회장 강남현 형제는 전반기에 이루어진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에 대해 이렇게 전한다.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며 노력하였기에 이 사업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고, 동시에 이를 실행하는 데 어떤 부분이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와드 회원들에게 구체적이고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수확입니다.” 강 형제는 가족 역사 사업에 참여하는 회원들의 숫자가 늘어나 더 많은 분들이 성전 의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첨단 와드 회원들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온전한 개종 및 실질적인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새로 부름받은 선교사 안내: 청년 전임 선교사 3명 / 부부 선교사 1쌍
(코로나19로 인해 해외로 부름받은 몇몇 선교사들은 국내 임시 선교부에서 봉사를 시작함)



원준희 장로

청주 스테이크
흥덕 와드
워싱턴 시애틀 선교부
(임시: 서울 선교부)



이제명 장로

서울남 스테이크
안양 와드
부산 선교부



황현비 자매

울산 지방부
방어진 지부
서울 선교부



김영권 장로 임영실 자매

부산 스테이크
구포 와드
부산 선교부

더 많은 지역 소식 기사와 사진을 교회 한국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 교회 한국 페이스북 페이지:
fb.com/churchofjesuschristkor
- 기사 제보 및 기타 문의(관리 본부):
02-2232-1441(전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카카오톡 채널 검색)
- 배부 센터: 080-238-8000

역원 및 단위 조직 변경

서울 스테이크

신촌 와드 감독: 이지열 형제(전임: 전영표 형제)

서울 남 스테이크

강남1 와드 감독: 박원규 형제(전임: 김현승 형제)

창원 스테이크

도계 와드 감독: 배상은 형제(전임: 김인준 형제)

마산 와드 감독: 이전우 형제(전임: 장용상 형제)

통영 지부 회장: 이호중 형제(전임: 박찬우 형제)